

Victoria Thierrée-Chaplin "Murmures des Murs"

빅토리아 채플린의

속삭이는

반역

2012.10.24

-10.25

오후 8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영화의전당 대표 김승업

STAFF

공연운영팀 팀장 서승우

공연기획파트 차장 박시영

대리 곽동현

사원 권민경

사원 장하영

인턴 조세미

무대기술파트 차장 김병찬

무대감독 과장 최광욱

기계파트 대리 허현영

조명파트 과장 장훈석

대리 오대영

음향파트 과장 김병태

대리 김보빈

홍보지원팀 팀장 정금용

차장 장익성

차장 박윤오

대리 김경민

인턴 김은주

인포메이션 사원 이보람

김은빈

이교은

MURMURES

DES

MURS

속삭이는 벽

Conception and direction: Victoria THIERREE-CHAPLIN

Set design : Victoria THIERRÉE-CHAPLIN made by Etienne BOUSQUET and Gerd WALTER

Costume design : Véronique GRAND, Jacques PERDIGUEZ, Monika SCHWARZL and Victoria THIERREE-CHAPLIN made by Sophie BELLIN and Aurélie GUIN

Choreography: Victoria THIERREE-CHAPLIN and Armando SANTIN

Actress: Aurelia THIERREE

Actor: Jaime MARTINEZ and Antonin MAUREL

Stage Manager : François HUBERT

Light technician: Thomas DOBRUSZKES

Sound Technician : Samuel MONTOYA PEREZ

Stage technician: Antoine GIANFORCARO

Dresser: Sophie BELLIN

Stage technician: Brian SERVETNYK

Tour Manager : Didier BENDEL

Production : Compagnie des Petites Heures

Coproduction : Théâtre de Carouge - Atelier de Genève / Les Théâtres de la Ville de Luxembourg / Cirque-Théâtre d'Elbeuf / La Coursive Scène nationale de La Rochelle / Grand Théâtre de Provence (Aix-en-Provence) / Scène nationale de Sénart / Théâtre de l'Archipel (Perpignan) et El Canal Centre d'Arts Scéniques (Salt-Girona) - Scène Catalane Transfrontalière (ECT-SCT) / Théâtre de Caen / Ville de Saint Quentin - Picardie / Le Rive Gauche - Scène conventionnée pour la danse / Théâtre de Villefranche (69) - Scène conventionnée / Avant Seine - Colombes / Crying Out Loud - Londres

Thanks: Damien Bricoteau, Albert Gerriet, Nasser Hammadi, James Thierrée

MURMURES DES MURS

속삭이는 벽

찰리 채플린의 딸과 손녀가 전해주는 환상적인 마임극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배우이자 감독으로 손꼽히는 찰리 채플린. 하지만 1950년대 그는 메카시즘 광풍 속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미 당국의 미움을 산다. 몇 번의 이혼과 스캔들로 이미 녹초가 된 그의 삶을 구원해 준 여인은 바로 극작가 유진 오닐의 딸, 우나 오닐이었다. 그녀는 채플린과 함께 스위스로 이주하여 8명의 자녀와 함께 35년을 해로했다.

축복받은 유전자를 물려 받은 채플린의 자녀들은 다수가 영화계로 진출하였는데, 우나 오닐과의 사이에서 낳은 넷째 딸 빅토리아 채플린의 관심은 영화보다는 공연 예술이었다. 그녀는 프랑스 배우이자 연출가 장-뱍티스트를 남편으로 맞았고, 옛 관습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서커스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빅토리아와 장-뱍티스트 사이에 태어난 두 명의 자녀(오렐리아와 띠에리와 제임스 띠에리)는 서커스 유랑단원처럼 학교를 가는 대신 부모를 따라 전 유럽을 돌아 다녔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부모의 공연에 참가했던 그들은 자연히 배우이자 창작자로 성장했다.

벽 뒤에 숨어 있던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2003년, 빅토리아 채플린이 연출하고 오렐리아 띠에리가 주연한 <오라토리오(Oratorio)>는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 극찬을 이끌어내며 세계 투어를 가졌다. 두 모녀가 2011년 두 번째로 공동창작한 <속삭이는 벽>은 또 한 번의 진화였다. '속삭이는 벽'이라는 제목 자체에 작품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텅 빈 무대에 벽이 세워지면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다른 벽이 세워지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즉, 이야기하는 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벽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막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은 어쩐지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집을 나와 익명의 창조물들에 둘러 쌓인다. 건물들은 실새 없이 움직이고, 버블 랩으로 만든 괴물에 잡아 먹히는가 하면, 회오리바람과도 같은 짧은 로맨스를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찰나일 뿐, 또 다시 바다 괴물에 쫓겨 익사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추격과 위협을 당한다. 이렇듯 75분 동안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작품은 누군가의 꿈속을 들여다 본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이렇듯 뚜렷한 이야기 대신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이미지들이 결합된 이 작품에 대해 오렐리아 피에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꿈(dream)과 상상력(imagination)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깨고 나면 꿈이 매우 모호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작품은 누군가가 (당신의) 꿈을 보는 것을 상상하면서 작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두 소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심플한 무대에 일상의 소품(종이상자, 버블 랩, 사다리, 전구, 우산 등)을 활용하여 연극적 상상력을 표현해 낸다. 여기에 서커스와 마임, 마술, 춤이 결합된 독특한 이 작품은 ‘기발하고 엉뚱하면서도 동시에 황홀하고 정교한’ 그들의 예술적 토양을 고스란히 증명해 낸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배우, 오렐리아 피에리에 주목하라!

어느덧 찰리 채플린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빅토리아 채플린과 오렐리아 피에리. 특히, 이제는 가족의 명성과는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오렐리아 피에리는 유연한 몸동작으로 아크로바틱한 장면들을 거뜬히 소화해내는가 하면, 탱고와 왈츠를 아름답게 소화하는 댄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아름다운 그녀의 꿈처럼 유연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 찰리 채플린과 연관되어 설명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 홍보물에 찰리 채플린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인터뷰 질문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질문을 자제해 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있었을 정도 - 오렐리아의 최면을 거는 듯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며 그녀가 이끄는 연극의 마법의 한 조각을 잡아보자.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때때로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와 같다.

또한, 유머러스하고 로맨틱하다.”

- British Theatre Guide

“우아하고, 초특급 상상력에, 섬세하고, 엉뚱하고, 위트 있고, 미스터리 하다.

재미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작품. 오렐리아 피에리는 화려한 기교와 위풍당당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든다.”

- The Jerusalem Post

“고백하면서도 슬프다, 마치 찰리 채플린처럼... 공연이 끝나면 깊은 사색에 빠질지도!”

- Ballet - dance Magazine





빅토리아 띠에리-채플린

Victoria THIERREE-CHAPLIN, 1951년생

전설적인 배우 찰리 채플린의 딸인 빅토리아 채플린은 미국에서 태어나 스위스에서 성장했으며 지금 현재 프랑스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 배우, 무대 디자이너이다. (*찰리 채플린은 슬하에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5명의 자녀들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빅토리아는 8번째 자녀이다.) 빅토리아는 아버지 찰리 채플린의 영화 <홍콩에서 온 백작부인(A countess from Hong Kong)>에 아역배우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발레와 음악을 공부한 그녀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프랑스 배우이자 연출가 장-뱍티스트(Jean-Baptiste Thierre)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장은 당시 <Le Cirque Bonjour>라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서커스'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이듬해에 <Le Cirque Bonjour>가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것을 시작으로 빅토리아는 이 작품의 주연을 맡아 프랑스 전역을 투어한다. 이어 두 사람은 <Cirque Imaginaire>란 작품을 만들어 두 자녀(오렐리와 띠에리와 제임스 띠에리)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다. 최근에 <Le Cirque Invisible>을 만들기 전까지 가족 멤버 전체가 함께 세계 투어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빅토리아와 장은 '현대 서커스'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퀴담>, <알레그리아>로 잘 알려진 '태양의 서커스' 작품에 영감을 준 크레딧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들인 제임스 띠에리(James Thierre)의 작품 <Jungbug Symphony>, <La Nielle des Abysses>, <Au Revoir Parapluie>의 무대 디자인과 의상제작을 맡기도 하였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빅토리아는 작품의 의상, 소품, 무대 디자인, 음악을 직접 고르고 디자인하며 안무 또한 직접 짠다고 한다. 아버지인 찰리 채플린이 작업했던 방식 그대로 그녀 역시 작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탈바꿈 혹은 변신(transformation), 환상의 창조물, 비현실적인 이미지, 온통 뒤죽박죽이라 금방이라고 부서질 것 같은 이미지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지난 40여 년 이상, 기발하고 엉뚱하면서도 위트 있는 작품들을 창작해 온 빅토리아의 작품 세계는 한국 연극 팬들에게 '극장과 연극 혹은 공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오렐리아 띠에리

Aurelia THIERREE, 1971년생

배우이자 연출가인 어머니 빅토리아 채플린(Victoria Thierre-Chaplin)과 아버지 장-뱌티스트(Jean-Baptiste Thierree) 사이에서 태어난 오렐리아 띠에리는 유년 시절의 기억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옷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로 유랑 생활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가족 전체가 캠핑 카를 타고 끊임없이 이동했다. 2층 침대의 뒷칸이 나만의 왕국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커튼을 열고서야 내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그녀가 태어난 것도 부모가 투어를 다니던 중이었다고 한다. 정규 학교도 다니지 않은 채 유년 시절 부모님을 따라 3살 때부터 무대에 서기 시작한 그녀는 부모님의 작품인 <Cirque Imaginaire>, <Le Cirque Invisible> 등의 작품에서 별레나 희귀한 동물로 많이 출연했다고 한다. 두 작품은 1970년대 현대 서커스(Contemporary circus)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유럽 전역에서 공연되고 있다.

이렇듯 유년 시절의 첫 번째 기억이 ‘조명과 관객’이라고 말하는 오렐리아는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혹은 투어 중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춤, 연기, 저글링, 공중그네 등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10대 접어들면서 집이 있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normal)’ 삶을 살고 싶었던 그녀는 14세에 투어를 멈추고 학교에 들어가 정규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곧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온다. “저는 인생에서 아무 것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저를 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기를 그만두고 나서 연기가 그리워졌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때를 회상했다.

이후 그녀는 베를린의 카바레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영국밴드 ‘Tiger Lillies’와 함께 투어를 하는 한편, 밀로스 포먼과 자크 바라티에(Jacques Baratier)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연출한 <오라토리오(Oratorio)>에서 주연을 맡은 오렐리아는 2003년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 극찬을 이끌어낸 후 세계 투어를 가져왔다. “극장(theatre)에 대한 러브 레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이 작품은 <속삭이는 벽>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스토리 라인 없이 서커스, 마임, 인형극적 요소, 춤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이다. 오렐리아는 한 인터뷰에서 그들의 작업을 “어떠한 장르로 규정하기보다 하이브리드한 작품”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내한하게 될 <속삭이는 벽>은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만든 두 번째 작품으로, 2011년 프랑스 초연 이후 이탈리아, 브라질, 런던 등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당신이 작품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들려주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선플레이블 10월 호에 권혜은 기자가 오렐리아 띠에리를 인터뷰한 것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행을 하며 자라고 배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 때의 경험이 아티스트로서 살아가는데 특별한 도움을 주었나요?

저는 제 유년시절이 저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제 인격 형성에 중요한 시간들이었죠. 세상에 대한 첫 경험이었고요. 어린 적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죠. 저는 3살 무렵부터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날 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든지 혹은 제 커리어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토리오(Oratorio)>에 이어 빅토리아 채플린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속삭이는 벽>과 <오라토리오>를 비교해주시면 가장 큰 차이점은?

<속삭이는 벽>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라토리오>는 실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벽>에서 제 캐릭터는 훨씬 아웃사이드적이구요, 주제와 세트가 다릅니다. <속삭이는 벽>은 ‘기억의 지도’에 관한 작품입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만일 벽(wall)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본다면, 비극과 열정을 관찰한다면, 벽들이 지켜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였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벽 - 빌딩, 집, 극장, 도시-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벽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들에선, 지나간 것들에 대한 걱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벽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숨겨주기도 하죠.

어머니이자 연출가로서의 빅토리아 채플린이 궁금합니다.

빅토리아는 본능적으로 작업하며 매우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출가로서 그녀는 매우 정확합니다. 때때로 어찌 보면 매우 작아 보이는 ‘노트’를 주는데... 당신은 그 작은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작업에 있어 매우 열정적입니다.

작품을 만들 때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그녀는 연출가입니다. 제 마음 속에 그것은 매우 확고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음악, 이미지, 주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빅토리아는 천(fabric)과 나무를 가지고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 세계는 항상 벌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세계로 들어와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도시에 처음 갔을 때처럼 거리 이름도 모르고 모든 게 낯설고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 무대가 세워지면 제 임무는 마치 탐정 일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마침내 스토리가 드러나게 되죠.

당신은 <속삭이는 벽>에서 75분 동안 난이도 높은 아크로바틱을 소화해야 하고, 탱고와 왈츠도 춰야 합니다.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래의 전통적 의미의 트레이닝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중 그네도 조금 배웠고, 작은 곳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서 허물어지지 않는 법도 배웠고, 그런 기술을 조금씩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연기하는 것은 항상 사랑했구요. 무엇보다 저는 무대 위에서 제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 행운이라 여깁니다. 제 이미 마르티네즈(Jaime Martinez)는 데이빗 파슨스(David Parsons)와 15년간 함께 활동했을 정도로 훌륭한 댄서입니다. 안토닌 뤼엘(Antonin MAUREL)은 피지컬한 움직임에 매우 능숙한 배우입니다. <속삭이는 벽>은 이들과 함께이기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룹 작업이며, 우리 모두는 매일 밤 서로를 믿고 공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연극이므로,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공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늘 배웁니다.

서커스와 마임, 마술이 결합된 공연입니다. 어떤 효과를 위해 이런 요소들을 극에 포함 시키셨나요?

저는 이것을 서커스 혹은 마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쇼는 하이브리드한 것이 특징이죠. 저는 저희 공연이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상적인 관객이라면,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볼지 전혀 모르고 와서 그냥 즐기는 관객들입니다.

<속삭이는 벽>은 ‘우아하고, 섬세하고, 엉뚱하고, 위트 있고, 미스터리하다’는 리뷰를 받았습니. 본인이 생각하는 <속삭이는 벽>은 무엇에 관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작품인가요?

이것은 연극입니다. 이것은 순간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깨지기 쉬우며 똑같은 때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객들의 상상력에 다라르길 바라는 어떤 세계, 혹은 스토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관객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믿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쇼가 무엇에 관한 작품이라고 제 스스로 말하기보다는, 관객 혹은 저널리스트가 공연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저에게 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아버지인 찰리 채플린과 할머니인 우나 오닐, 어머니를 비롯해 삼촌과 이모들까지 가족들 전부가 예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안 분위기에서 예술적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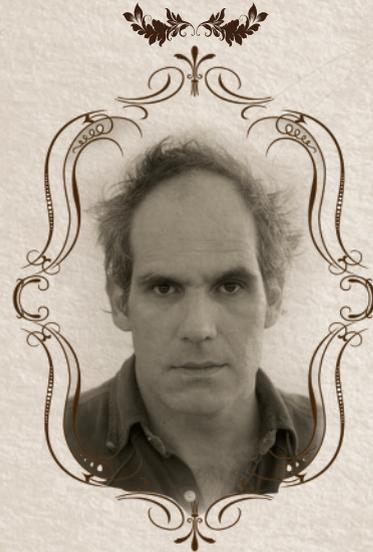
제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무척 신기하면서도 신났었죠. 저는 특히 조명을 좋아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객들을 봤을 때 그곳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죠. 그러나 관객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배우는 무대 위에 섰을 때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훌륭한 배우와 연출가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쇼가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일단 막이 오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죠.



Jaime Martinez

제이미 마르티네즈

제이미 마르티네즈는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에서 태어나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콜롬비아에서 자랐다. 그는 노스 캐롤라이나 아트 스쿨과 뉴욕의 아메리칸 댄스 머신 컴퍼니에서 수학했으며 파슨스 댄스 컴퍼니의 설립 멤버로서 1985년부터 단체의 정식 무용수로 활동해왔다. 그는 저명한 줄리어드 학교를 포함 400회가 넘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린 발레단, 몬트리올 재즈 발레단, 노르웨이의 최대 현대무용단인 까르프 블랑쉐, 낭시 국립 발레단, 펜실베이니아 발레단, 뉴욕 시티 발레단, 밀워키 발레단, 마르세유 롤랑 프티 발레단 등과 같은 다수의 무용단과 많은 작업을 해왔다. 그는 뉴욕 베시 어워드(Bessie Award)의 무용&연기부문 수상자이기도 하다.



Antonin Maurel

안토닌 뤼헬

안토닌 뤼헬은 배우, 작곡가,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연출가 제롬 사바리(Jerome Savary)와 작업하는 한편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빌리아의 엑스포의 개막식을 장식한 바 있는 엘즈 코미디 안츠(Els Comediants) 그룹, 전통 서커스의 거장 조셉 부글리오니(Joseph Bouglione), 작곡가 미셸 르그랑(Michel Legrand) 등과 함께 공연하였다. 2010년 이후, 빅토리아 피에리 채플린과 오렐리아 피에리와 공연해 오고 있다. 1992년 알베르빌(Albertville) 동계 올림픽에서 공연된 필립 드쿠플레(Philippe Decouflé)의 발레 음악을 작곡하였으며 그 밖에도 2010년 파리의 유명한 Crazy Horse 쇼와 윌리엄 클레인의 영화 <Le Geste Sport>, 니나 모라토(Nina Morato)의 앨범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94년부터는 예술성이 뛰어난 클라운(clown) 그룹을 결성하여 전세계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투어를 이어오고 있다.



하이든의 고향 EISENSTÄDT에서 온 세계정상의 앙상블

하이든 피아노 트리오

내한공연 HAYDN TRIO EISENSTÄDT

2012.11.3(토) 오후 5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하이든 피아노 트리오

Piano Harald Kosik (하랄드 코지크)

Violin Thomas Selditz (토마스 쉘디츠)

Cello Hannes Gradwohl (하네스 그라드볼)

PROGRAM

Haydn, Franz Joseph Piano Trio No. 43 in C Major Hob. XV:27

Sung-Min, Ahn Piano Trio "The Seasons - AUTUMN" 2012

Haydn, Franz Joseph Piano Trio No.39 in G Major Hob. XV:25 (Gipsy)

Schubert, Franz Peter Piano Trio No.1 B flat Major Op.99, D898

전석 20,000원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 회원 할인 : Premium, Gold 회원 30% (1인 4매) Rainbow, 학생 회원 20% (1인 2매) · 단체 할인 : 20인 이상 10%, 30인 이상 15%

· 복지 할인 : 장애우 1~3급 본인 외 동반 1인 50% 장애우 4~6급 본인 50% · 군경 할인 : 의무복무자 본인 50% ** 관련 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현장에서 차액 지불), 중복할인 불가

문의 (051)780-6000 www.dureraum.org